

조선후기의 도검증여(刀劍贈與)에 대한 고찰

조혁상*

국문초록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검(刀劍)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력(武力)을 상징하는 기물로 인식되어져 왔다. 살상무기(殺傷武器)라는 일차적인 성격을 지닌 개인용 단병기(短兵器)인 도검은, 그 무기를 소지함으로써 사용자가 적에 대한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행사할 수 있는 무력의 권위(權威)를 지니게끔 한다. 이러한 도검을 선물로 주는 행위는, 선물을 받는 자에게 외적(外敵)과 악인(惡人)을 척살하는 무력의 권위를 부여함을 뜻하거나, 선물받는 자를 요괴(妖怪)나 악수(惡獸) 등의 온갖 사악한 외물(外物)로부터 무력으로 지켜주는 호신의 부적을 증여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외적과 악인을 척살하는 권위를 지닌 도검은, 사대부의 의리정신을 반영하는 의검(義劍)의 형상으로서 문학 속에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소유자를 사악한 외물로부터 지켜주는 도검은, 벽사(辟邪)의 신물(神物)인 신검(神劍)의 면모를 작품 속에 드러낸다. 이러한 두 유형을 동시에 지니는 도검이 소유자에게 증여된 이후에는, 군자(君子)의 수신기물(修身器物)인 수양검(修養劍)의 의미를 지니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검과 신검, 수양검의 의상(意象)은 조선시대의 도검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고, 그 중 도검선물의 유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된다.

본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조선후기 도검증여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의 도검증여’에서는 친족간의 도검증여와 무관이 받은 도검선물에 관해 설명하였고, ‘국제적 도검교류’에서는 조선인과 외국인 간 친교의 징표로서의 도검선물과 조선과 중국간 외교의 예물로서의 도검증여에 대해 논하였다. 상기 사례들에 관한 이러한 연구는, 조선의 도검문화와 도검문학에 대한 이해도를 증대시켜주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도검, 도검선물, 의검, 신검, 수양검, 조선 도검문화, 조선 도검문학

* 趙赫相. 홍익대학교 교양과 겸임교수

투고일 : 2014. 11. 5. 심사완료일 : 2014. 11. 18. 게재확정일 : 2014. 12. 10.

I . 서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검(刀劍)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력(武力)을 상징하는 기물로 인식되어져 왔다. 살상무기(殺傷武器)라는 일차적인 성격을 지닌 개인용 단병기(短兵器)인 도검은, 그것을 소지한 주인에게 적에 대한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행사할 수 있는 무력의 권위(權威)를 지니게끔 한다. 이러한 도검을 선물로 주는 행위는, 선물을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외적(外敵)과 악인(惡人)을 척살(刺殺)하는 무력의 권위를 부여함을 뜻하거나, 선물받는 자를 요괴(妖怪)나 악수(惡獸) 등의 온갖 사악한 외물(外物)로부터 무력으로 지켜주는 호신의 부적을 증여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외적과 악인을 척살하는 권위를 지닌 도검은, 사대부의 의리정신을 반영하는 의검(義劍)의 형상으로서 문학 속에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소유자를 사악한 외물로부터 지켜주는 도검은, 벽사(辟邪)의 신물(神物)인 신검(神劍)의 면모를 작품 속에 드러낸다. 이러한 두 유형을 동시에 지니는 도검이 소유자에게 증여된 이후에는, 군자(君子)의 수신기물(修身器物)인 수양검(修養劍)의 의미를 지니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검과 신검, 수양검의 의상(意象)은 조선시대의 도검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고, 그 중 도검선물의 유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된다.

본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조선후기 도검증여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의 도검증여’에서는 친족간의 도검증여와 무관이 받은 도검선물에 관해 설명하였고, ‘국제적 도검교류’에서는 조선인과 외국인 간 친교의 징표로서의 도검선물과 조선과 중국간 외교의 예물로서의 도검증여에 대해 논하였다. 상기 사례들에 관한 이러한 연구는, 조선의 도검문화와 도검문학에 대한 이해도를 증대시켜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국내의 도검증여

1. 친족의 증여

잠곡(潛谷) 김육(金堉, 1580~1658)의 <보검지(寶劍志)>는, 부친 김흥우(金興宇, 1564~1594)가 김육이 태어난 해인 1580년(선조 13)에 족인(族人)을 시켜 해주(海州)에서 정련하여 만든 한 자 길이의 검(劍)에 관한 이야기이다.

김육은 임진왜란의 난리 때 13살의 나이로 이 검을 차고 수천 리 길을 숨어 다녔는데도 다행히 잃어버리지 않았고, 선군(先君)의 사후(死後) 매년 검을 어루만지며 슬픈 감상에 젖었으며, 먼 길을 나설 때에는 건상(巾箱)에 넣어두고 떠났다. 1627년(인조 5) 9월에 김육은 도체찰사(都體察使) 김류(金瑬)의 종사관(從事官)으로서 군사를 점고하라는 명을 받고 충청도와 경상도를 순행한 후, 이듬해 봄에 조정으로 돌아와 행장(行裝)을 살피다가 검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 자책하며 속만 썩인다. 그러다가 몇 달 뒤에 종자(從者)가 그 검을 훔쳐 숨겼다는 소식을 우연히 알게 된 김육은, 그를 효유(曉諭)하여 검(劍)의 행방을 물어보니 명나라 군대가 주둔한 가도(假島)에 팔게 하였다고 하였다. 김육이 그를 시켜 속히 검을 회수하게 하면서 이미 팔렸으면 값을 두 배로 치르고 사겠다고 하였는데, 마침 아직 팔리지 않았기에 그가 드디어 가지고 돌아오자, 김육은 검을 어루만지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과 상봉하듯 기뻐하면서도 슬퍼한다. 병자년(1636, 인조 14)에 김육이 동지사(冬至使)가 되어 중국에 조회하러 가게 되었는데, 바다를 건너 무사히 갈 수 있을지 보장하기가 어려워 큰아들 김좌명(金佐命)에게 칼을 맡기고서 떠났다. 이 해에 병란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좌명이 이 칼을 차고 강화도(江華島)로 들어가서 또다시 다행히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다. 임진년의 난리로부터 몇 차례의 병화를 겪으면서 부친의 유품을 전부 잃어버렸는데 오직 이 검 하나만은 아직도 남아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보배라고 김육은 이야기한다. 그와 아들이 차고 다니면서 보전하여, 김육 자신과 더불어

어 60년을 함께 하고서 3대나 전해져 온 보물이 되었으니, 이는 하늘의 운수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김육은 결론 내린다. 김육은 이 검이 계속 남아있기를 빌면서, 하늘을 믿으면서 오직 자신의 정성과 공경을 다하리라 다짐한다.¹⁾

이 작품은 춘성부원군 남이웅의 집안에서 내려온 일본도에 대한 글인 <남씨단검명>에 비견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후기에 부친에게서 물려 받은 도검을 대를 이어 소장하는 풍습이 사대부 가문에 있었고, 해를 넘기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검의 의미가 더욱 강해져서 도검 자체의 품질과는 상관없이 선조의 유품인 고검(古劍)을 보검(寶劍)으로 인식하는 풍토가 생겨났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연경재(研經齋) 성해응(成海應 : 1760~1839)의 검명 작품들을 소개한다. 성해응의 문집인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 권(卷)15에는 독특하게도 고검(古劍)에 대한 검명(劍銘)이 10편이나 실려 있는데,²⁾ 그 중에서

1) 『潛谷遺稿』卷9, 「雜著」, 《跋》 <寶劍志> : 寶劍者, 非古之所謂龍泉太阿射斗牛躍江津者, 亦非人人之所可以爲寶者. 獨吾之所自以爲寶者也. 是劍也長不過一尺, 而鞘環精妙, 拔之則鋌刃炯炯然可愛. 先君於庚申年, 使族人鍊造於海州, 是我生之歲也. 先君常置几案間, 以爲截紙之用. 壬辰之難, 我年十三, 佩之以行, 奔竄於關東西數千里之道, 幸而不失. 先君既沒, 手澤所存, 惟有此劍, 余每撫玩悲感. 遠出則置之巾箱中以行. 丁卯九月, 余從體幕, 受點兵之命, 往巡湖左嶺南, 翌年春還朝, 歸閱行裝則劍已失矣. 惘然傷痛, 無以爲懷, 只以藏之不密, 自罪而腐心也. 數月之後, 偶因兒輩, 聞從者竊而藏之. 使親信人曉之曰: “此劍在他人, 則只是尋常一刀耳, 在我則有不忍捨之意. 雖千金不易, 汝卽還之. 我只喜見劍而已, 不汝罪也.” 從者服罪曰: “果愛其奇妙而竊取. 已送賣於椴島矣.” 是時, 毛將軍領大兵在島, 我人往來互市故也. 余曰: “若未賣則速爲持還, 已賣則我當陪價贖之.” 使更問之, 適未及賣. 遂取以來, 摩挲而且喜且悲, 若再生人之相遇也. 丙子, 余以冬至使朝天, 萬里越海, 難保無事. 遂付長子佐明而行. 是年, 兵火猝起, 佐明佩入江都, 又幸而不失. 自壬辰之亂, 凡幾經兵火, 青氈舊物, 蕩盡無餘, 而獨此劍猶存, 茲非所謂寶歟. 前則我佩而存之, 後則子佩而全之. 與我共六十年而爲三世之寶, 此豈非有數存於其間, 而非人力之所可爲者乎. 此後之傳之悠久, 雖不可期, 而天之護於前者如是, 則其或護於後者. 吾亦恃之乎天, 惟當盡吾之誠敬而已. 書以識.

친족에게서 증여받은 검에 대한 검명인 <남씨단검명(南氏短劍銘)>과 <이제독검명(李提督劍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춘성부원군 남이웅이 18살 때 왜적에게 사로잡힌 일이 있었다. 공이 왜적이 잠든 틈을 타서 몰래 그 보검을 풀어서 달아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배를 타고 명나라 조정에 조회갈 때, 검을 차고 갔는데 바람과 파도의 우환이 없었다. 그 아들이 효종을 모시며 심양의 관사에서 인질이 되었는데, 그 검을 차고 가니 8년 동안 탈이 없었다. 그 손자가 임금의 명령으로 울릉도에 들어갔는데, 또 검을 차고 가니 끝내 탈이 없었다. 명을 짓는다.³⁾

尙書佩	상서가 차니
蛟螭伏	교룡이 복종하고
郡守佩	군수군이 차니
災沴息	재앙이 사라지며
萬戶佩	만호군이 차니
海舶利	바닷길이 순탄하네
適然耶	우연인가
抑劍之助也	아니면 검의 도움인가?
其異矣哉	거 참 기이하다

<남씨단검명(南氏短劍銘)>은 춘성부원군 남이웅(南以雄, 1575~1648)의 집안에 내려오는 일본도(日本刀)에 대한 검명(劍銘)이다. 춘성부원군 남이웅이 일본도를 소장하게 된 내력과, 그 검이 아들과 손자에게 전수된 행적을

2) 성해응의 검명 10편의 제목은 <家中古劍銘>, <兪搃管劍銘>, <李貞翼劍銘>, <林將軍劍銘>, <崔將軍劍銘>, <南氏短劍銘>, <李提督劍銘>, <斫石劍銘>, <忠貞劍銘>, <六稜劍銘> 등이다.

3) 『研經齋全集』 卷15, <南氏短劍銘> : 南春城以雄年十八, 爲倭所獲. 公間倭睡, 潛解其寶劍而走免及歸. 航海朝京, 佩而行, 無風濤患. 其子侍孝廟, 質于瀋館, 佩而行, 八年無恙. 其孫以王事入鬱陵島, 又佩而行, 卒得無恙. 銘曰 : ….

설명하고 있다.

남이웅은 18세에 임진왜란을 만나 적에게 사로잡혔다가, 밤에 묶여있던 자루 안에서 탈출하여 도망가던 와중에 잠든 왜적이 허리에 차고 있던 단검을 몰래 풀어서 가지고 숲 속으로 도망하였다. 남이웅이 훗날 귀하게 되어 인조 4년(1626)에 배를 타고 북경으로 파견되어 조회가면서, 검을 차고 가니 끝내 바람과 파도의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를 일본도의 도움이라 여겼다.

그 후 서자인 군수군(郡守君) 남두림(南斗臨, 1588~1682)이 후일의 효종(孝宗)인 봉림대군(鳳林大君)이 1637년(인조 15)부터 1644년(인조 22)까지 8년 동안 청(淸)나라 심양(瀋陽)에서 인질로 붙잡혀있는 동안 곁에서 모셨는데, 부친인 남이웅이 아들 두림에게 출발할 때 이 일본도를 차고 가라고 하였고,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심양에서 8년 동안 아무런 근심이 없었다.

그 일본도는 남이웅 사후 마침내 남두림에게 전해졌고, 남두림은 이를 막내아들인 만호군(萬戶君) 남중하(南重河, 1663~1721)에게 내려주었다. 남중하가 후일 나랏일로 울릉도(鬱陵島)에 들어갈 때 바닷길 700리를 건너는데, 이 일본도 단검을 차고 가니 또한 끝까지 근심이 없었다. <남씨단검명>에서는 이 일본도가 남씨 가문에서 3대에 걸쳐 호신(護身)을 해주는 보검(寶劍)의 역할을 하였으니, 참으로 기이하다고 평하였다.⁴⁾

제독 이여송이 왜적을 정벌하러 우리나라에 왔는데, 통진의 금씨여자가 모시게 되었다. 금씨여자가 태기가 있었는데, 제독이 검을 주며 떠나며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면 천근이라 이름붙이는 것이 좋겠소.’라 하였다. 내가 일찍이 제독의 후손 이원으로부터 들었으니, 그 이야기가 믿을 만하다. 또

4) 남중하는 후일 零落하게 된 이후에도 이 일본도를 끝까지 남에게 팔지 않다가, 죽음에 임하여 형 南重澤(1643~1723)의 아들 南龍五(1698~?)에게 이 칼을 물려준다. 東谿 趙龜命(1693~1737)이 1732년 작품인 <南氏短劍銘>과 1722년에 지은 <南重河傳>에 이 일본도의 내력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 검을 보니 검면에 핏자국이 있었다. 검은 지금도 이씨 집안에 있다. 명을 짓는다.5)

少師有姬	소사의 여인은
曰維琴氏	그 성은 금씨라네
琴之材矣	거문고의 재질인데
徵以劔乎	검으로써 징험하였네
天根之巖	천근이 헌걸차서
七尺其軀	그 몸은 칠척 장신이었네
縱釁中坻	비록 핏자국이 중간을 갈랐으나
蜿蜒其痕	그 흔적이 꿈틀꿈틀하였네
不綉不澁	얼룩도 없고 녹슬지도 않아서
垂于後昆	후손에게 전해주었네
余徵斯言也	내 이 말을 징험하노니
維總管源	바로 총관 이원이로다.

이 글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원군의 지휘관이었던 이여송 제독의 검이 조선의 자손들에게 전해지게 된 배경을 설명한 <이제독검명(李提督劔銘)>이다. 이제독의 검에 대한 내력은 성해응이 이여송의 5세손인 총관(總管) 이원(李源)에게서 직접 들었기에, 그 신빙성을 더한다.6)

김육과 성해응의 글 외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검에 대한 다른 기록도 살펴보도록 하자. 이만운(李萬運, 1736~1820)의 <가장소도기(家藏小刀記)>에서는 자신의 5대조(五代祖) 이원정(李元禎, 1622~1680)의 칼이 증손자인 할아버지 이윤중(李允中, 1686~1706)에게 증여된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

5) 『研經齋全集』 卷15, <李提督劔銘> : 李提督如松征倭而東至, 以通津琴氏姬侍焉. 琴姬有身, 提督贈劔而行曰 : ‘生子可名天根.’ 余嘗從提督後孫源聞之, 其傳信也. 又見其劔, 劔面有釁. 劔今在李氏家. 銘曰 : …

6) 『송천필담』 제37화에 이여송가의 가족과 후손에 관한 간략한 기록이 보인다.

이는 곧 오대조의 부인이신 정경부인 이씨께서 할아버님께 내려주신 것이다. 할아버님께서서는 병인년(1686)에 태어나셨는데, 어머님이 안고 이씨에게 보이자 이씨께서 기이하게 여기며 말하기를, “이 아이는 반드시 이조판서의 지위에 오를 것이다.”라 하시고, 판서공께서 쓰시던 금패(錦貝) 갓끈과 차고 다니시던 칼을 내려주셨다. 할아버님께서서는 어려서 뛰어난 재주가 있으셔서, 보는 사람들이 크게 될 것이라 여겼는데, 불행히도 병술년(1706)에 돌아가셨으니 나이가 겨우 21세였다. 할아버님의 옥그릇같은 아름다운 자질이 마침내 여기에 그쳤다. 이씨의 감식안이 탁월하셨으나 그 말이 징험되지 못하였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갓끈은 도둑이 훔쳐가서, 오직 칼만 남아있을 따름이다. 이것으로 소기(小記)를 지었으니, 뒤따르는 후세 자손들이 우리 집안의 청전(靑氈)인 옛 물건을 알고 지키도록 말했을 뿐이다.⁷⁾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에 연루되어 장살(杖殺)당한 이조판서 이원정의 칼은, 그의 부인에 의해 증손자 이윤중에게 증여되었고, 이윤중의 요절 이후에는 그의 손자 이만운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다. 이원정의 경우 사후 1689년에 신원(伸冤)이 되었으나, 그의 아들인 이한명(李漢命, 1651~1687)이 부친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병을 얻어 부친이 신원되기 직전 37세의 이른 나이에 사망하였고, 이한명이 죽기 1년 전에 태어난 손자 이윤중도 결국 21살의 나이로 단명하였다. 이윤중의 손자인 이만운은, 비범한 자질이 있었으나 일찍 생을 마쳐서 아무런 업적도 이루지 못한 조부에 대한 안타까움을, 집안에 내려온 칼에 관한 기문을 통해 표현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신흙의 손자인 분애(汾厓) 신정(申晷, 1628~1687)이 술김에 쌍

7) 『默軒先生文集』 卷7, 「記」 <家藏小刀記> : 此乃五代祖妣貞敬夫人李氏所賜祖考府君之刀也. 府君生于丙寅之歲, 姆抱見於李氏, 李氏奇之曰: “此兒必居冢宰公地位.” 賜以冢宰公錦貝之纓及所佩刀. 府君幼有儁才, 見之者無不期之以遠大, 不幸歿於丙戌之歲, 享年纔二十一. 以府君瑰器美質. 竟止於斯. 以李氏鑑識卓越, 其言不驗, 豈非天哉. 纓則失於偷盜, 惟刀在耳. 茲爲小記, 俾後世子孫知爲吾家靑氈舊物而保守之云爾.

검을 아이들에게 장난삼아 준 사실을 기록한 시인 <취중이쌍검희증소자(醉中以雙劍戲贈少子)>를 보도록 하자.

先生貧甚四壁空	선생이 몹시 가난하여 네 벽이 비었는데
匣裏猶有雙蛟龍	상자 속에 아직도 한 쌍의 교룡이 들어있네
金鏤錯落雪鏘明	금코등이 또렷하고 눈같은 칼날 빛나는데
衝霄寶氣成長虹	하늘을 찌르는 보배로운 기운 긴 무지개 이루었네
掛壁由來歲月深	벽에 건 이래로 세월은 깊어가는데
吾今老矣成何功	나는 이제 늙었으니 무슨 공을 이루랴?
付與兒曹事明主	아이들에게 주노니 밝은 임금을 섬겨서
提攜萬里追群雄	만리길 차고 다니며 군웅을 따르거라
嗚呼此劍倘有用	오호라! 이 검이 혹시 쓰임이 있다면
一舉可以平西戎	일거에 서융을 평정할 수 있으리라 ⁸⁾

이미 늙어버린 신정은 이 검으로 공을 세울 수 없으니, 아이들에게 이 검을 가지고 명군(明君)을 섬겨서 검을 차고 군웅(群雄)을 따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 검이 만약 제대로 쓰인다면 단번에 서쪽 오랑캐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 서융(西戎)은 실은 청(淸)나라의 여진족(女眞族)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구절에서는 아직까지 사그라들지 않은 북벌(北伐)의 의지(意志)와 이를 이루지 못하는 한(恨)이 은연중에 배어나오고 있다.

부모와 친지에게서 물려받은 도검선물 이외에,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검을 선물한 사례에 관한 글을 보도록 하자.

세속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인년(寅年)·인월(寅月)·인일(寅日)·인시(寅時)에 두드려 제조한 칼을 사인검(四寅劍)이라 한다. 이것이 잡귀를 물리친다고 하는데, 갑인년(甲寅年 : 1614, 광해군 6) 정월에 동양위(東陽尉)가 나를 위해 이 칼을 만들었다.[俗傳寅年月日時打成者曰四寅劍 能辟鬼 甲寅春正

8) 『汾厓遺稿』 卷6, 「卯酉錄」 <醉中以雙劍戲贈少子>.

東陽爲余鑄成]

林有魍兮山有夔	숲에는 소(魍)가 있고 산에는 기(夔)가 있으며
陸有虎兮水有螭	물에는 범이 있고 물에는 이무기가 있어
夜而行兮晝而伏	밤이면 나와 다니고 낮이면 숨어있으면서
攬余裾兮嚙余足	나의 옷깃 끌어 잡고 나의 발을 물어 뜯는다
橫中途兮不可制	길 한복판에서 횡행하니 억제할 수 없고
爲民害兮勢漸獬	백성을 침해하니 형세 점점 포악하네
我有刀兮名四寅	나에게 사인(四寅)이라 이름하는 칼 있어
讐地祇兮通天神	땅귀신을 두렵게 하며 천신과도 통하는데
白銀粧兮沈香飾	백은으로 단장하고沉香으로 꾸몄으며
光潑潑兮霜花色	광채가 서리빛처럼 번쩍번쩍하네
防余身兮奚所懼	내 몸을 방어하는데 두려울 게 무엇인고
邪自辟兮罔余迂	사귀(邪鬼) 저절로 쫓겨가서 나를 범하지 못하리
精爲龍兮氣爲虹	정수(精髓)는 용이 되고 기(氣)는 무지개 되어
橫北斗兮亘紫宮	북두성을 가로질러 자미궁까지 뻗어나니
行與藏兮惟余同	나가거나 감추어지기를 오직 나와 함께 하다가
歲將暮兮倚空同	나이 장차 늙어지면 공동산(空同山)에 의지하리 ⁹⁾

앞서 언급한 신정의 조부이자, 한문사대가(漢文四大家)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신흙(申欽, 1566~1628)의 <사인도가(四寅刀歌)>를 보도록 하자. 이 시에서 신흙은 그의 아들인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 1588~1644)에게서 선물받은 사인도(四寅刀)를 묘사하고 있다.¹⁰⁾ 신흙은 당대의 명신(名臣)으로, 아들에게 인검을 선물로 받을 당시에는 1613년(광해군 5)의 계축옥사(癸丑獄事)로 인해 삭탈관직을 당하여 조정에서 방축(放逐)되어 김포로 내려가 있던 상태였다. 선조의 부마(駙馬)였던 신익성은 임진왜란 때에는 선무원

9) 『象村集』 卷7, <四寅刀歌>.

10) 민간에서는 인검을 개별적으로 專門 冶匠에게 주문하여 제작하였지만, 신익성의 경우 선조의 부마였기에 尙衣院에서 공급한 官制寅劔을 입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에 올랐으며, 1606년(선조 39)에는 오위도총부 도총관(五衛都摠府 副摠管)을 지냈다. 후일 병자호란 때 그는 주화파(主和派) 대신들이 세자를 청나라에 볼모로 보내자고 하자 칼을 뽑아 그들을 위협하기 까지 했고, 나중에는 척화대신(斥和五臣)의 한 사람으로서 청나라 심양에 압송될 정도로 상무정신과 반청의식이 강했던 인물이다. 이들 부자는 박규수가 말한 것처럼 ‘왕실을 함께 도와 평온하거나 험난하거나 충절을 다한[共獎王室 夷險盡節]’¹¹⁾ 사대부(士大夫)였다.

<사인도가>를 읽어보면, 숲도깨비인 소(魍)와 산도깨비인 기(夔), 범[虎]과 이무기[螭]같은 요물(妖物)과 악수(惡獸)들을 제압하는 신검(神劍)으로서의 인검 이미지가 한층 더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온갖 요물과 악수들은 숲과 산, 물과 물 등 도처에서 밤에 출몰하여 시인을 위협한다. 길 한복판에서 이러한 귀물(鬼物)들이 마음대로 횡행하니 그 세력을 억제하기 힘들고, 무고한 백성들마저 이 때문에 해를 입는 등 그 형세가 점차 광폭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흙이 땅귀신을 두렵게 하는 동시에 천신과도 통하는 칼, 광채가 빛나는 사인도로 스스로를 방어하자, 사악한 귀물들은 저절로 쫓겨간다. 신흙이 가진 사인도의 정수(精髓)는 용이 되고 검기(劍氣)는 무지개가 되어, 하늘을 뚫고 올라가 북두성을 가로질러 자미궁(紫微宮) 별자리까지 뻗쳐오른다. 신흙은 이 사인도와 출사(出仕)를 함께 하다가, 후일 황제(黃帝) 때의 신선 광성자(廣成子)가 도(道)를 공부했던 공동산(空同山[筭頭山])¹²⁾에서 사인도를 지니고 은거하겠다고 한다. 이는 귀물(鬼物)들을 물리치는 귀중한 신물인 사인도의 가치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 칼과 평생을 같이 하고자하는 신흙의 사인도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다.

신흙의 <사인도가>에 나타난 온갖 요물과 악수들은 곧 당시 계축옥사를 주도한 대북파(大北派)를 지칭한다. 신흙은 은연중에 <사인도가> 속에서

11) 『瓊齋集』 卷5, <處士涇泉申公墓誌銘>.

12) 『元和郡縣志』 卷3, 「管縣」4 <平高縣>.

인검을 사용하여 괴물같은 간신들을 처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인검이 벽사(辟邪)의 신검(神劔)적인 상징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의검적(義劔的)인 상징성(象徵性)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신검과 의검의 성격을 함께 지닌 인검은, 후일 신흘이 공동산에서 은거할 때 수양검(修養劔)으로서 사용될 예정인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친족간의 도검증여에 대한 도검문학 작품들은, 거의 부친이나 직계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 신정의 경우 자식에게 쌍검을 준 사실을 시를 통해 기록하였으며, 신정의 조부인 신흘의 경우에는 아들인 신익성에게서 선물받은 사인도에 대해 시를 짓기도 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의 소재가 된 검은, 그 원산지와 도검의 형상·성능과는 전혀 관계없이 친족에게서 증여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대부분의 작가들에게 귀중한 보검(寶劔)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의 경향성은 조선후기 사대부의 보검에 대한 관념의 일단(一端)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2. 무관(武官)의 선물

본절에서는 무관(武官)에게 증여된 도검선물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무관에게 있어서 도검은 전장(戰場)의 필수 장비가 되는 개인 병기(兵器)인 동시에, 무관 자신의 직급에 상응하는 공권력(公權力)과 무력(武力)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검을 무관이 선물로 받을 경우, 그 선물의 의미가 더욱 각별해진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정익검명>과 <원용검기>는, 문관(文官)이 무관에게 검을 선물로 증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성해응의 검명 10편 중 하나인 <이정익검명(李貞翼劔銘)>은, 효종임금의 북벌계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정익공(貞翼公) 이완(李浣, 1602~1674)이 충정공(忠貞

公) 홍무적(洪茂績, 1577~1656)으로부터 고검(古劍)을 선물받은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

정익공 이완이 효종임금의 뼈에 사무친 부탁을 받았는데, 춘추의 의리에 깊은 식견이 있었다. 홍무적공이 집안에 전해 내려온 고검을 그에게 주면서, “이는 천지의 지극히 강건한 기운이 모인 것이라네.”라 하였다. 정익이 늘 그것을 차고 다녔다. 명을 짓는다.¹³⁾

仁義以爲鐔	인의로 코등이를 삼고
忠信以爲鏢	충신으로 칼날을 삼네
捨貞翼而曷之服	정익이 아니라면 그 누가 차겠는가?

효종임금의 뼈에 사무친, 청나라에 대한 복수의지를 받들고자 했던 이완은, 북벌을 위해 훈련대장과 병조판서의 임무를 맡았던 인물이었다. 명(銘)에서는 이 검이 인의(仁義)로 칼날과 칼손잡이 사이에 끼우는 손을 보호하는 쇠테인 코등이를 삼고 충신(忠信)으로 칼날을 삼았으니, 이완이야말로 이 검의 적합한 주인이라 결론짓고 있다. 홍무적이 이완의 진가를 알아보았기에, 문신인 자신보다는 무신인 이완이 고검의 주인으로서 어울릴 것이라 생각하고 그 검을 선물로 주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소개할 자료는 『돈암집(敦巖集)』 6권의 <원용검기(元戎劍記)>이다. 순조 대 반남 박씨의 대표적인 권세가였던 박종경(朴宗慶, 1765~1817)의 작품으로, 충무공이 사용한 쌍룡검을 병조판서 심상규(沈象奎, 1766~1838)로부터 전해받았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병부상서 심두실 공이 나에게 검 한 자루를 주면서 말하기를, “이 검은

13) 『研經齋全集』 卷15, <李貞翼劍銘> : 李貞翼受孝廟心膂之托, 深於春秋之義. 洪公茂績以家傳古劍贈之曰, “此天地至剛之氣也.” 貞翼常服之. 銘曰 : …

이충무공이 패용하던 것이오. 내가 간직한지 오래되었으나 나는 서생이라 쓸 데가 없으니, 상장군이 된 자에게나 어울리겠소.”라 하였다. 나는 그 검을 받고 매우 기뻐하며 절하고, 그것을 뽑아보니 길이가 1장 남짓이었고, 아득하기가 끝이 없었다. 참으로 좋은 검이었다. 칼등에는 시가 있었는데,

鑄得雙龍劍 쌍룡검을 만드니
千秋氣尙雄 천추에 기상이 웅장하도다
盟山誓海意 산과 바다에 맹세한 뜻이 있으니
忠憤古今同 충성스런 의분은 고금에 같도다

라 했다. 내가 놀라 말하기를, “또 한 자루가 있을 터인데, 어떻게 이것을 구하여 합칠 수 있을까?”라 했다. 심수일이 지나서 홀연히 검을 지니고 들어와서 고하는 자가 말하길, “신기하게도 이것을 샀습니다. 장군이 지니고 계시면서 아끼시는 검과 어찌 그리 꼭 같은 말입니까?”라 하였다. 내가 심공이 준 검과 비교해보니 벽에 걸어놓은 것과 꼭 같았다. 잠자코 한동안 있다가 비로소 검의 출처를 물었더니, 아산현에서부터 차고 온 자가 있었다고 한다. 내가 말하길, “믿을만하다. 지난번 심공의 말이 지금도 어긋나지 않으니, 또 검 한 자루를 얻었구나.”라 했다.

야! 임진왜구의 난에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지키면 반드시 보호하여, 우리 해동을 증흥한 공의 기초를 다졌으니, 관현에 입히고 태상(역사)에 기록하여 조두를 진설해서, 그 이름을 썩지 않게 할 사람은 오직 충무공일 뿐이다. 공이 이미 아산에서 자취를 남기시어, 돌아가신 뒤에 아산에서 장사를 치렀는데, 검이 또 아산에서 나온 것이다. 공께서 돌아가신 후 200여년이 지났으니 물건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이치인데, 지금 다시 물건이 합쳐진 것은 또한 신령스러운 일이다. 드디어 서둘러 구입해서 심공이 준 검과 갑 속에 함께 보관함으로써 풍성의 검 두 자루만이 그 아름다움을 독차지하지 않도록 하였다. 나 또한 서생인지라 군자의 무비에 소홀하니, 오직 후세의 충무공 같은 자를 기다려 그것을 전하리라. 신미년(1811, 순조 11) 10월 하순에 그 시말을 이상과 같이 기록하노라.¹⁴⁾

심상규가 오랜 기간 소장했던 이순신의 검을 받은 박종경은, 검을 받고 절을 하고 나서 검을 바로 뽑아보며, 검의 길이¹⁵⁾와 검명¹⁶⁾을 확인한다. 검명을 보고 이 검이 원래 쌍검이었음을 깨달은 박종경은 다른 한 자루의 검을 찾고 싶어 했는데, 우연히도 심수일이 지나서 이순신의 장지(葬地)인 아산현으로부터 온 나머지 검을 선물받게 된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순신의 쌍룡검이 현충사에 보존되지 못한 채 유전되다가 당시대 권세가들에게 입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1910년 궁내부박물관에 소장되어있던 조선유물에 대해 일제가 조사 편찬한 서적인 『조선미술대관』에도 쌍룡검의 사진이 실려 있어서 이 무렵까지 이

14) 『敦巖集』卷6, <元戎劍記> : 兵部尙書斗室沈公, 贈余一劍曰: “此李忠武之所佩也. 藏之久矣 我書生無所用 爲上將軍者 乃可耳” 余拜而喜甚 拔之長可丈餘 泯然無際 眞良劍也 脊有詩曰: “鑄得雙龍劍 千秋氣尙雄 盟山誓海意 忠憤古今同” 余驚語曰: “又有一枚也, 安得此而合之.” 過十數日, 忽有持劍而入告者曰: “異哉. 此有鬻焉 與將軍所得而愛之者, 何其酷相類也.” 余視之, 沈公所贈, 宛在壁上, 默然良久, 始問劍所從出, 人自牙山縣有帶來. 余曰: “身乎. 向者沈公之言今不爽, 而又得其一劍也.” 噫! 壬辰倭寇之亂, 戰必捷, 守必保, 以基我海東中興之功, 被管絃而紀太常, 饗之俎豆而不朽其名者, 惟忠武是已. 公既發跡於牙, 及其沒, 葬于牙, 劍又出于牙, 公亡後二百有餘年, 物之聚散, 是固理也, 而今復有合物, 亦靈矣. 遂亟購之, 與沈公所贈, 同藏于匣, 不使專其美於豐城二劍也. 余亦書生, 疎於君子之武備, 惟俟後之如忠武公者傳之, 歲辛未十月下澣, 紀其始末如右云爾.

15) 보통 조선시대의 무기 길이 단위로 쓰인 周尺의 경우 1척이 약 20.7cm이고, 1丈이 10척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검의 길이는 대략 207cm로 추산된다. 현재 아산 현충사에 소장된 이순신의 장검유물 두 자루(196.8cm, 197.2cm)보다 약 10cm가 긴 칼로, 일반적인 대도의 크기가 100cm 내외인 점을 고려해볼 때 쌍룡검도 노타치 [野太刀] 형태의 장검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궁내부박물관에 소장되었던 쌍룡검의 경우 사진을 살펴볼 때 그 길이가 대략 90~100cm 내외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진 속의 쌍룡검과 박종경의 쌍룡검이 같은 칼인지는 단정지을 수 없다.

16) 任憲晦(1811~1876)의 『鼓山集』卷11, <統制使李公墓碣銘>(1871)을 보면,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낸 李復淵(1688~1732)이 통제사 재직 시절(1725~1727) 이순신 장군을 흠모하여 한 쌍의 장검을 만들어, ‘盟山誓海意, 忠憤古今同’의 구절을 새겼다는 기록이 있다. <원용검기>에 나오는 쌍룡검이 이순신의 검인지, 아니면 이복연의 검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두 자루 검이 전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¹⁷⁾ 그러나 국내의 박물관에는 이 유물이 소장되어있지 않고, 2014년 현재까지 그 행방도 묘연한 상태이다.

이완에게 고검을 선물한 홍무적은 효종 등극 전에 병조참판을 지냈었고, 심상규는 박종경에게 쌍룡검을 선물하였던 1811년 당시 병조판서로 재직 중이었다. 이처럼 조정의 군사관련 요직에 몸담았던 문관들이 무관에게 검을 선물한 일화는, 검이 자신을 제대로 사용해줄 수 있는 참된 주인을 만났을 때에 보검으로서의 효용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생각했던 당시대 사대부들의 도검관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Ⅲ. 국제적 도검교류

1. 우정의 징표

본 절에서는 우정의 징표로 증여된 도검선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도검선물에 관한 글을 살펴보도록 하자.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이 소장하고 있던 일본도는, 원래 그의 외할아버지인 백호(白湖) 임제(林悌, 1549~1587)의 칼이었다. 왜국 상인이 임제에게

17) 『조선미술대관』에 실려있는 설명문은 다음과 같다. “이 그림의 도검은 임진왜란의 수군을 통솔하여 우리 군대와 힘껏 싸웠던 명나라의 이순신이 늘 패용했던 것으로서, 왼쪽의 문자를楷書로 새겨놓았다. 鑄得雙龍劍 千秋氣尙雄 盟山誓海意 忠憤古今同 상자에는 조각으로 이러한 일을 기록해놓았는데, 본 물건은 본래 한국에서 제작한 것으로 한국과 일본 역사상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특별히 참고가 되게 그것을 적는다.(本圖の刀劍は壬辰の役水軍を率ひ我が軍と力戰せし明の李舜臣が常に佩用せしものにて左の文字を楷書にて刻しあり 鑄得雙龍劍 千秋氣尙雄 盟山誓海意 忠憤古今同, 箱には彫刻にて此の事を記しあり, 本品は固より韓國制作のものとも思はれざれども, 韓國及び日本歴史上の關係深きが故に殊に參考として之を載す) 이 글에서는 이순신을 명나라의 장수라고 誤記했는데, 임난 당시 이순신이 조선과 명나라 연합함대를 지휘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선물로 준 우정의 징표인데, 임제의 사후 그의 딸인 허목의 어머니가 간수하였다가 외손자인 허목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다. 허목의 <검[劔(日本劔)]>이라는 글에 이러한 내력이 개략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외조부 백호공(白湖公)이 벼슬하지 않았을 때 바닷가에 유람 갔는데, 만이(蠻夷) 장사꾼이 공을 만나 크게 기뻐하고서 치장한 상자 속에 든 검을 꺼내어 선물로 주면서 말하기를, “신표(信標)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였다. 공께서 받으시고 옷을 벗어주어 사례하였다. 이 고검(古劔)은 길이가 한 자 남짓 되는데 아침이면 칼날에 물기가 서려있었다. 공이 만력 4년(1576, 선조9)에 예조정랑으로 39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백사(白沙) 이상국(李相國 : 李恒福)이 유권(遺卷)의 서문을 지으면서 매우 자세하게 칭찬하고 인정하였다.

임진년(1592)에 우리나라에 큰 난리가 일어나 우리 집안사람들이 양호(兩湖) 1000여 리를 피난 다녔는데 선비(先妣)께서 이 검을 지니고 다녀서 온전할 수 있었다. 탄식하기를 “난리를 겪은 뒤에 우리 선인의 옛 물품은 오직 검 하나뿐이다.” 하고 그 검을 백씨와 숙씨에게 돌려드렸는데 백씨와 숙씨가 받지 않으며 말씀하시기를 “큰 난리를 만나 골육도 보전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검이겠는가. 자씨(姊氏)의 현명함이 아니었다면 그 검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지 오래되었을 것이다. 돌려주지 말고 자손에게 전하여 후세에 어진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하라.” 하였다. 이 때문에 그 검이 허씨에게 전해진 지가 2세 100년이 되었다. 선비(先妣)의 성품이 충후(忠厚)하고 베풀기를 좋아하였으나, 자잘한 사랑은 하지 않으셨다.¹⁸⁾

18) 『眉叟記言』 卷67, 「自序續編」 <劔(日本劔)> : 外祖白湖公, 以布衣游海上, 有蠻夷賈客, 遇公大悅, 出其裝匣中劔, 贈之曰: “所以識信也.” 公受之, 解衣以謝之. 古劔長尺餘, 朝則劔銛有水. 公萬曆四年, 以禮曹正郎, 三十九歿, 白沙李相國作遺卷序, 推許之甚悉. 壬辰, 東方大亂, 我家奔竄兩湖千餘里, 先妣持此劔得全. 嘆之曰: “經亂後, 吾先人舊物, 惟一劔耳.” 以劔還伯叔氏, 伯叔氏不受曰: “逢大亂, 骨肉且不保, 況劔乎. 靡姊之賢, 劔爲他人有, 固已久矣. 其勿還也, 傳之子孫, 令後世知賢母之心.” 以故劔傳於許氏, 今二世百年. 先妣忠厚好施, 不爲屑屑之仁.

호방한 성격으로 유명했던 임제는,¹⁹⁾ 포의시절 바닷가에서 유람하다가 우연히 왜인 장사꾼을 만나서 일본도 단검을 선물받게 되자, 자신의 옷을 답례로 벗어준다. 한 자 남짓 되는 이 칼은, 아침이면 공기 중의 수증기가 칼날에 응결되어 물기가 서려 있곤 하였다. 임제의 사후, 허교(許喬, 1567~1632)와 결혼한 임제의 딸이 임진왜란 중의 피난길에 그 칼을 지니고 다니다가 자신의 형제들²⁰⁾에게 돌려주려 하였는데, 형제들이 만류하여 결국 임제의 일본도를 허씨 집안에서 소장하게 되었던 것이다.²¹⁾

다음은 조선인과 중국인 간의 도검증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송와(松窩) 정재숭(鄭載嵩, 1632~1692)이 그의 부친 양파(陽坡) 정태화(鄭太和)를 따라 1662년에 연경(燕京)에 사행(使行)을 갔을 때, 10월 18일 영평(永平)에서 강서(江西)출신인 객가족(客家族) 중국 문사(文士) 위상(魏祥 : 魏際瑞)²²⁾과 만나자 그에게 패도(佩刀)를 주었다.²³⁾ 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위상의

19) 백호 임제는 임종에 이르러 鏡城 判官으로 부임하는 친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시를 읊었다.

元帥臺前海接天 원수대 앞바다는 하늘과 맞닿는데
 曾將書劍醉戎氈 나도 일찍 글과 칼로 용단 위에 취했었네
 陰山八月恒飛雪 음산이라 팔월에도 흰 눈이 날려
 時逐長風落舞筵 때로는 바람 타고 춤추는 곳에 떨어졌네

姜浚欽(1768~1833)은 이에 대해, 임종에 다달아 지은 시인데도 여전히 기세가 늠름하여 호방한 것이 이와 같았다고 평하였다(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三溟詩話』, 소명출판, 2006, 110쪽 해석 참조).

20) 백씨와 숙씨는, 임제의 아들 4형제 중 임지(林地)과 임탄(林坦)이다(曹相烈, 『白湖林梯文學研究』, 又石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6, 14쪽 참조).

21) 星湖 李瀾(1681~1763)은 허목의 일본도를 소재로 하여 <日本刀歌>와 <更次日本刀歌> 2수를 지었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朝鮮後期 士人の 日本刀 認識에 대한 考察』을 참고할 것.

22) 魏際瑞(1620~1677)는 初名이 祥으로, 명나라가 망한 후 寧都의 金精山 翠微峯 밑에 은거하여 농사지으며 그 고장 사람들을 가르치고 古文에 전력하였다. 연경을 유람하던 중 조선사신인 정태화 일행을 만나서 검을 선물받았다.

23) 『耳溪集』 卷9, 詩○賡載錄 <賡詩> : 撻伐皇威靜海濤, 扶顛帝力及秋毫. 蟲魚并育生成澤, 光岳爭瞻覆燾高. 北苑百年藏誥勅, 東韓千里獨冠袍. 須看中土遺民集, 揮涕高

아들 위세걸(魏世傑)이 1675년에 지은 <고려도기(高麗刀記)>에 실려 있다.²⁴⁾²⁵⁾

내가 어려서부터 도서(圖書)와 화법첩(畫法帖), 기완물(器玩物) 따위를 좋아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패도(佩刀)와 궁시(弓矢)를 더욱 좋아해서 잘 간수하여 작은 방에 놓아두었다. 내가 서생(書生)으로서 도리어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에 일찍이 나 자신이 우스웠다. 그런데 패도는 대부분 남쪽과 북쪽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고파는 물건이라서 좋은 것이 거의 없었다. 임인년(1662)에 아버지께서 영평역(永平驛)에서 고려의 사신을 만나고 돌아와서는 글을 보내어 나에게 말하기를, “사신과 종일토록 말을 나누었는데, 이별을 하면서 작은 칼 하나를 나에게 주었다. 경사(京師) 사람들이 쉽사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너에게 보내니 잘 보관하거라.” 하였다. 나는 그 패도를 몹시 좋아하여 패옥으로 꾸민 다음 몸에 찻다.

내가 10년 전에 듣건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모습이나 머리털, 띠, 의복, 장신구 등이 대부분 이상한데, 유독 고려의 사신들이 올 적에는 망건(網巾)을 쓰고, 사모(紗帽)를 쓰고, 너른 소매의 붉은 도포를 입고, 속대(束帶)를 두르고, 말 위에 앉은 채 들어와 조회하니, 서울 사람들이 한관(漢官)의 위의(威儀)라고 탄복하였다고 한다. 나는 늦게 태어나서 일찍이 영인(伶人)들의 모습을 통해 이런 몇 가지 사실들을 보았다. 나는 궁벽한 시골에서 태어나 보고

麗使者刀.(故相臣鄭載嵩, 隨其父赴燕, 道遇文士魏祥, 贈以佩刀. 祥子世傑文集中載 <高麗刀記>, 珍藏世傳云)

- 24) 尹行恉이 지은 <李懋官墓碣銘>에, “魏世傑이 지은 <高麗刀記>를 읽고 문득 주먹을 치고 크게 울부짖으며 눈물을 줄줄 흘리다가, 곧 나를 위하여 寧南侯 등 모든 사람들의 得失을 말하는데, 詞氣가 분발하여 밤이 지새는 줄 몰랐다(讀魏世傑高麗刀記, 輒撫掌大呼, 涕紛紛下, 因爲余言寧南侯諸人得失, 詞氣奮發, 夜不知曙)”는 기록이 있다.
- 25) 이 일화를 바탕으로 지은 朴齊家의 <詠魏際瑞事>는 다음과 같다.
- 摩挲一尺黍皮刀 담비가죽에 싸인 1척 칼을 쓰다듬는데
 山店人稀夜月高 산점에 사람 드물고 밤에 달은 높구나
 底事金精峯裡客 어찌하여 금정봉 속 손님은
 吞聲泣向鄭兵曹 소리삼켜 울며 정병조판서를 향하였는가?

들어서 아는 바가 없으며, 밭걸음이 마을 밖을 나가지 못하였는바, 뜻과 기운이 답답하기가 마치 검갑(劍匣)에 들어 있는 칼과 같다. 이에 글을 읽는 틈틈이 좁은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 매번 무료할 적마다 이 칼을 잡고서 오랫동안 쓰다듬었다.

패도는 길이가 8촌(寸)이며, 몸체가 그중에 반이었다. 칼자루는 소의 뿔로 만들고 칼집은 사피(斜皮)로 만들었으며, 백금(白金)으로 장식하였다. 그리고 칼날 옆에는 구아빈(狗牙鑢)이 있어서 마치 개 이빨이 서로 맞물린 듯하였는데, 그것을 갈면 흔적이 더욱 드러났다. 시험삼아 다른 쇠를 잘라보면 쇳가루가 마치 톱밥이 쏟아지는 듯하였다.

을사년(1665)에 아버지께서 산중으로 돌아와서는 다시금 붓과 종이, 먹을 주면서 나에게 궁시(弓矢)와 반우(盤盂), 관복(冠服)의 이상스러움을 말해주었는데, 사신은 흰출하여 하얀 피부에다 아름다운 수염을 가지고 있으며, 말을 타고서 날마다 300리씩을 가는데,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간다고 하였다.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면서 그들과 만나 서로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세히 듣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하였다. 이에 매번 이 칼을 보면서 깊이 탄식하였다.

을묘년(1675) 3월에 궤짝 속에서 칼을 꺼내어 갈고는 이를 썼다. 재실(梓室) 세걸은 기록하다.²⁶⁾

『위흥사집(魏興士集)』에 수록된 <고려도기>는, 먼저 위세걸이 모은 서화 골동 수집품 중 도검과 궁시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1662년 아버지가 정태화 일행에게서 친교의 징표로 받아온 도검선물을 물려받게 되어, 기뻐하며 이 칼을 패옥으로 장식한 후 차고 다닌다. 조선의 사신을 직접 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탄식하면서 칼을 자주 쓰다듬었던 위세걸은, 이 칼의 전장과 외양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8촌(약 24cm)의 전장을 가진 이 칼은, 우각으로 손잡이를 했고 칼집은 담비가죽으로 만들었으며, 백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개 이빨이 서로 맞물린 듯한 구아빈(狗牙鑢)은 갈면 그 흔적이

26) 『海東繹史』 『藝文志』 卷16, 《中國文》 4 <魏世傑高麗刀記>.

더욱 드러났다는 구절로 미루어볼 때 칼날에 금이나 은으로 입사(入絲)한 문양으로 보인다.²⁷⁾ 그리고 이 칼로 다른 쇠를 잘라보면 쇳가루가 톱밥 떨어지듯 하였다는 부분은, 단검으로 쇠를 잘라도 칼날이 몽그러지지 않을 정도로 18세기 조선의 도검제작기술이 뛰어났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위세걸은 조선의 사신을 만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다시금 한탄하면서, 이 글을 썼다. 비록 위세걸과 조선 사신 간에 직접적인 친교는 없었지만, 그는 조선 사신과 부친의 친교로 인해 받은 조선의 도검선물에 감응하여 조선인에 대한 호감을 <고려도기> 속에서 계속적으로 표출하였던 것이다.

이후 18세기에 이르러, 일본도를 구하여 여행길에 소지하고 가서 청나라 문인인 친구 증욱(曾燠, 1760~1831)과 장문도(張問陶, 1764~1814)를 만났을 때 선물한 박제가(朴齊家, 1750~1805)의 사례를 보도록 하자.

박제가의 셋째아들 박장암(朴長菴)이 부친이 중국문인들과 교유한 문적을 모아 편찬한 『호저집(縞紵集)』 하(下) 권2에는, 증욱의 <조선사증일본도 위작가(朝鮮使贈日本刀爲作歌)>와 장문도의 <부일본도가증진한(附日本刀歌贈陳瀚)>이 수록되어 있다. 증욱에게 준 일본도는 조선 땅에서 발굴한 것으로 임란 때 왜병이 사용한 기물이었는데, 박제가가 이를 선물한 것은 당시의 일본도 애호 풍조와 궤를 같이 한다. 그리고 장문도의 경우, 이 일본도를 즉석에서 증욱으로부터 넘겨받고 시를 지었다.²⁸⁾ 우선 증욱의 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朝鮮使者贈我日本刀 조선의 사신이 나에게 일본도를 주며
 云是戰場未銷鐵 이것은 전장(戰場)에서 사그라지지 않은 철이라 하네

27) 조선시대 도검의 입사 방식은 칼날 표면의 홈을 사다리꼴 형태로 파서 금이나 은을 집어넣기에, 칼날을 갈아도 안의 금과 은이 빠지지 않고 선명하게 그 광채를 드러낸다.

28) 후지츠카 치카시(藤塚鄰), 『추사 김정희의 또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52~53쪽 ; 안대회, 「초정 박제가의 여행과 일상 속의 국제교류」, 『동방학지』 145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59쪽.

倭人遺此二百年 왜인이 이를 남긴 지 200년
 上有明季征人血 과거 명(明) 말엽 우리를 공격하였네
 我爲拔鞘風淒絕 내가 칼을 뽑자 바람이 처절하여
 炎日當空三尺雪 뜨거운 해 공중에 있어도 석 자 눈이 내리는 듯
 祇愁化作蒼精龍 다만 푸른 용 될까 근심하였는데
 雷吼虛堂電光掣 조용한 빈집에 우렛소리, 번갯불 일어났네
 鷺鷥膏瑩不可捫 벽제(鷺鷥) 기름으로 빛냈으니 만질 수 없고
 血漬點點朱砂痕 여기저기 뿌려진 피에 물든 주사(朱砂)의 흔적
 遙想沈沙在平壤 멀리 생각해보면 평양성 모래에 묻혀있어
 天陰鬼哭哀煩冤 하늘 흐리고 귀신 울 때 슬퍼하며 번민하네.
 誰令東國苦倭亂 누가 동쪽나라를 왜란으로 힘들게 하였는가?
 萬曆往事一一堪追論 만력(萬曆) 연간 지난 일을 일일이 추론해보리라.
 唐人畏倭本如虎 당(唐)나라 사람들은 본래 왜놈들을 범과 같이 무서워하니
 海防軍士爲倭虜 바다를 지키는 군사들은 왜놈의 포로가 되었네
 釜山樓櫓何披猖 부산(釜山)의 망루가 어찌서 광포함을 당하여
 王京不守奔虜王 서울을 지키지도 못하고 나약한 왕 도망하였나?
 救冊存衛賴中國 존속을 위해 계책 내어 중국에 의뢰하니
 義旗一舉倭敢當 의병의 군기(軍旗) 단번에 왜놈을 감당하구나
 豈謂援師屢挫衄 어찌 원군이 자주 패함을
 天戈斷折刀無鏃 명나라의 창칼이 부러졌다고 하지 않겠는가?
 如松已敗碧蹄館 이여송(李如松)은 이미 벽제관(碧蹄館)에서 패하고
 石星應昌惟主款 석성(石星)과 송응창(宋應昌)은 오직 화친만을 주장하네
 惜哉政府無良謀 애석하구나, 정부의 좋은 계책 없으니
 陽戰陰和智亦短 양전음화(陽戰陰和)의 지모(智謀)가 또한 짧았구나
 四方杼柚烽火燼 사방의 북 소리와 봉화는 꺼지고
 十萬沙蟲水風卷 십만의 희생자들 용오름되네
 平倭一詔劇可憐 왜적을 평정하자는 조서 매우 가련하도다
 關白自亡倭自返 관백이 스스로 죽어 왜적들 저절로 돌아가
 我朝九有揚聲靈 우리 조정 온 국토에서 성령을 드날리니
 下國共球誰不庭 제후국의 공구(共球) 중 누가 조회하지 않겠는가?

但見舞干格荒服 다만 덕화(德化)가 변방에 이르는 것을 보았으니
 由來銷甲資農耕 갑옷을 녹여 농기구를 만들었네
 東國來王百餘載 동쪽나라에 참다운 왕이 오신지 백여 년이라
 海波恬靜江華清 파도가 편안하고 강도 맑아졌네
 倭刀雖利亦無用 왜도가 비록 날카로우나 또한 쓸데없어
 祇合持贈陶先生 다만 장문도(張問陶) 선생에게 주었네
 著之刀劍錄可與 『도검록(刀劍錄)』에 실어도 괜찮은가?
 昆吾大食齊其名 곤오도(昆吾刀)·대식도(大食刀)와 이름을 나란히 하네²⁹⁾

박제가는 증욱에게 일본도를 주며, 이를 전장에서 사그라지지 않은 철기(鐵器)라 하였다. 임진왜란 후 200년이 지났는데도, 증욱이 칼을 뽑자 그 싸늘한 기운으로 인해 바람이 처절하게 일어나는 듯, 더운 대낮에도 검광 때문에 석자 눈이 내리는 듯 하였다. 증욱은 이 검이 푸른 용으로 변할까 근심하였는데, 조용한 빈 집에서 도검이 지닌 용의 기운으로 인해 우렛소리와 번갯불이 일어나는 듯 했다. 방청유인 벽제 기름을 칼날에 발라서 날을 만질 수 없었는데, 날에 군데군데 녹슬어있는 붉은 부분을 피가 물든 것으로 증욱은 생각한다. 두목(杜牧)의 <적벽시(赤壁詩)>에 ‘꺾인 창 모래에 잠겼어도 쇠는 사그라지지 않아, 이것을 가져다 갈고 닦으니 전조의 것임을 알겠네 [折戟沈沙鐵未消 自將磨洗認前朝]’라는 구절처럼, 평양성 전투 이후에 사그라지지 않고 묻혀있던 일본도는, 용과 같은 영물의 기운이 있어 하늘이 흐리고 귀신이 올 때 스스로 슬퍼하고 번민하였다. 만력황제 연간의 임진왜란에 대해 서술하는 증욱은, 서울을 지키지도 못하고 도망친 선조임금에 대해 나약한 왕[孱王]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하면서, 명나라의 원군에게 도움을 받았으나 이어송이 벽제관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병부상서 석성과 임진왜란 당시 명군의 지휘부인 경략군문(經略軍門) 병부시랑(兵部侍郎)의 총사령을 맡았던 송응창이 화친만 주장하였던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이 양전음화

29) 『縞紵集』 下 卷2, <朝鮮使贈日本刀爲作歌(贈煥作, 見賞雨茅屋詩集卷之一)>.

(陽戰陰和)³⁰⁾의 계책이 없어서였다고 안타까워한다. 사방의 북소리 그치고 봉화도 꺼졌으며, 십만의 희생자들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용오름[waterspout]처럼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왜적을 평정하자는 조서는 가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일본의 관백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스스로 죽어서 왜적들이 저절로 돌아가자, 만력황제의 성령이 온 국토에 드날리니 제후국의 왕들 중 누가 조회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증욱은 묻고 있다. 덕화가 머나먼 변방까지 이르러 갑옷을 녹여 농기구를 만들고, 동쪽나라에도 왕업이 이루어져 좋은 시절이 지속된다고 한 증욱은, 박제가로부터 받은 일본도가 비록 날카롭지만, 태평성대에 자신은 쓸데가 없다고 하며 장문도에게 넘겨준다. 증욱은 이 칼을 『도검록』에 실어도 괜찮을까 하고 자문하는데, 『도검록』은 중국 남조(南朝)의 양(梁)나라 학자인 도홍경(陶弘景 : 456~536)의 명검(名劍)에 대한 책인 『고금도검록(古今刀劍錄)』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검인 곤오도(昆吾刀)·대식도(大食刀)와 이름을 나란히 한다고 일본도를 칭송한다.³¹⁾

다음으로 장문도의 시를 보도록 하자.

海客貽我日本刀	바다 손님 나에게 일본도를 주었으니
寒光一尺疑冰蛟	한 자의 찬 빛은 언 교통을 의심하네
醉中脫贈意無極	취중에 풀어주니 뜻이 무궁하다
愛君氣奪千人豪	그대 기운이 천 사람의 호협함을 빼앗음을 좋아하였네
盤根錯節別利器	복잡한 일에 날카로운 기물과 떨어져

30) 陽戰陰和 : 『明史』에 “邢玠가 參軍 李應試를 불러 계책을 묻자, 이응시가 조정의 기본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형개가 말하기를, ‘겉으로는 싸우면서 안으로는 화의하며, 표면으로는 토벌하면서 이면으로는 위무하는 것이다. 조정의 이 여덟자 비밀스러운 계획은 누설하지 말라[玠召參軍李應試問計, 應試請問, 朝廷主畫云何. 玠曰陽戰陰和, 陽勦陰撫. 政府八字密畫, 無泄也]”고 하였다.

31) 周나라의 제후국인 곤오국은 붉은 빛을 발산하면서 마치 진흙을 베듯이 玉物을 자르는 赤刀로, 사라센 제국인 대식국은 wootz鋼으로 만든 명검 shamshir로 유명하다.

安居美食成何事 편안하게 거하고 맛난 음식 먹으며 무슨 일을 이루겠는가?
 浮世升沈盡偶然 뜬세상의 성쇠는 모두 우연이니
 少年莫損英雄氣 젊은이들은 영웅의 기상을 버리지 않았네
 斫地起舞爲君歌 칼로 땅을 찍고 일어나 춤추며 군주를 위해 노래하니
 我輩自視當如何 우리들은 스스로 돌아봄에 어떠한가?
 藏刀不用亦神王 감춘 칼이 쓰이지 않아도 또한 신왕(神王)스러우니
 請君一日三摩挲 청컨대, 그대는 하루에 세 번 어루만지소서
 書生戴頭不敢近 서생은 머리 말에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으니
 死守毛錐剛一方 죽음으로 지킨 붓 한 방면은 강하나
 那知烈士多苦心 어찌 열사의 고심 많음을 알리오?
 文人好武原非病 문인이 무(武)를 좋아함은 본래 병이 아니로다
 嗚呼文人好武原非病 오호라. 문인이 무를 좋아함은 본래 병이 아니거늘
 君不見鄉曲小儒無血性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시골의 작은 선비가 혈기없음
 을³²⁾

장문도는 술자리에서 박제가가 증욱에게 주었던 일본도를 넘겨받았는데, 1척의 칼날에서 발하는 싸늘한 검광을 보고 얼음에 사는 교룡을 떠올린다. 장문도는 취중에 칼을 풀어준 박제가의 뜻이 무궁하다고 하면서, 박제가의 기운이 천 사람의 호협스러움보다도 더 낫다고 칭찬을 한다. 복잡한 일에 연루되어 칼과 멀어져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고 한 장문도는, 뜬 세상의 성쇠는 우연이고 조선의 문사인 젊은이들에게 영웅의 기상이 있어, 칼로 땅을 찍고 검무를 춤추며 군주를 위해 노래하는데 비해, 중국 문사인 자기들은 영웅의 기상이 없음을 한탄한다. 감춘 칼이 쓰이지 않아도 또한 신령한 왕의 기운이 있는 듯 하니, 하루 세 번 어루만지라고 하는 것은 박제가의 말이다. 그런데 장문도는 이 점을 머리 말에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글은 잘써도 열사의 고심 많은 심정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겸사를 하고 있다. 문인이 무를 좋아함은 병이 아니지만,

32) 『縞紵集』下 卷2, <附日本刀歌贈陳瀚(刀爲朴楚亭贈物)>.

시골의 작은 선비인 자신에게는 호협한 혈기가 없음을 장문도는 한탄한다.

조선인과 일본인,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에 우정의 징표로서 도검을 증여한 사례를 명시하고 있는 상기 작품들은, 선물을 받는 자에게 무력의 권위를 부여하는 도검증여에 대한 조선 사대부의 관념을 일본인과 중국인들도 공유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2. 친선의 예물

명(明)나라 도룡(屠隆, 1541~1605)의 고동(古董) 전문서적인 『고반여사(考槃餘事)』에서 검(劍)이 감정과 수집의 대상으로 언급된 이래, 중국인의 일본도 수집 경향은 조선에도 그 영향을 끼치게 된다.³³⁾ 이덕형(李德馨, 1561~1613)이 1593년(선조 26) 4월 13일에 경상우순찰사에게 보낸 편지글 말미에는 “송시량[宋侍郎(宋應昌)]과 이원수[李元帥(李如松)]가 모두 좋은 왜도를 애써 찾으니, 널리 구해서 속히 부쳐 그들의 뜻에 부응해주기 바랍니다.”³⁴⁾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는 16세기 후반에 이미 중국에서 명품인 일본도에 대한 기호(嗜好)가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국의 일본도 수집 경향으로 인해 조선에서 생긴 일화를 하나 소개한다. 『기문총화(記聞叢話)』에는 인조 대에 호조판서였던 이명(李溟, 1570~1648)이 낭청(郎廳)이었던 임의백(任義伯, 1605~1667)을 시켜서 청나라 장수와 청 황제에게 예물로 보낼 일본도를 저자에서 구한 사연이 수록되어 있다.³⁵⁾

33) 당시 중국인들은 일본도를 구한 다음, 도검의 날을 취해서 중국식 片手刀로 개조하여 소장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칼을 世家刀라 한다.

34) 『權墨』(하영희 역, 김채식 교열, 成均館大學校 博物館, 2009) 仁 394 : “宋侍郎·李元帥, 俱竭覓好倭刀, 伏望廣搜速寄, 以副至願.”

35) 이 이야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그 시기는 1630년대 후반에서 1640년대 중반 사이일 가능성이 크다. 이명은 1637년(인조 15) 6월에 호조판서로 임명되었다가 함경도관찰사로 이직한 후, 다시 1638년(인조 16) 9월부터 1646년(인조 24) 6월까지 호조판서

판서 이명(李溟)의 자(字)는 자연(子淵)으로, 전주 사람이고 이양의 손자이다. 그가 호조판서로 있을 때, 참판 임의백이 낭청으로 있었다.

청나라의 어떤 장수가 조선에 와서 품질이 진기한 왜검을 찾았다. 이명이 임의백에게 장사꾼들을 독촉하여 그런 칼을 찾아 들이라고 하였다. 며칠 만에야 비로소 칼 한 자루를 구하여 바치니, 이명은 그 칼을 받아서 자기 집에다가 간수해 두고는 또다시 한 자루를 구해 바치라고 하였다. 그러자 장사꾼들이 매우 원망스럽게 여겼다. 임의백도 의아해서 망령되게도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추한 흉을 보았다. 그러나 감히 상관의 명을 어길 수 없어서 다시 칼 한 자루를 구해 바쳤다. 그런데 새로 구한 칼은 먼저 것보다 훨씬 못한 것이었다.

이명은 새로 구한 칼을 청나라 장수에게 주라고 하였다. 청나라 장수는 기뻐하며 그 칼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청나라 황제가 매우 급하게 보검을 찾았다. 이명은 전날 간수해두었던 칼을 내주며 웃음을 띠고 말하였다. “낭관은 지금도 나를 욕할 터인가?”

대개 청나라 황제가 칼을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헤아려서 그 칼을 간수해두었던 것이다. 관아에 두면 혹시라도 남들이 바꿀까 여겨져서 자신의 집에다가 두고 기다렸던 것이다. 그가 일의 형편과 물정을 헤아리는 능력은 예사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었다.³⁶⁾

청나라 장수가 조선에서 귀한 일본도를 찾았을 때, 이명은 처음에 임의백에게 명을 내려 청나라 장수에게 바치기 위한 일본도를 저자에서 구하게 된다. 그런데 일단 검을 구하자 이명이 그 검을 개인적으로 사저에 보관해두

를 지냈다.

36) 『記聞叢話』第91話：李判書溟，字子淵，完山人，樑之孫也。爲戶判時，任參判義伯爲郎廳，有清將來索珍品倭劍，李公使任督市人覓納，屢日始得一劍以進，則李公受而藏之私室，又令更進一口，市人大以爲怨，任亦疑駭，妄加醜詆於衆會之處。而不敢違，更得一口而進，大不及於前者，公命遺清將，清將喜而受之。未幾，清帝求寶劍甚急，李公以前日所藏者出給，仍笑曰：“郎官今又辱我乎？”蓋先料其必有清帝之求而藏之。在官府，或爲人所換，仍留私室以待之。其料事揣情，非凡人所及(김동욱 역, 『記聞叢話』, 아세아문화사, 1999, 번역 참조).

고 다른 일본도를 구해오도록 지시한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임의백과 백성들이 온갖 비난을 퍼부어도 이명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임의백을 통해 지난번 것보다 훨씬 품질이 떨어지는 일본도를 획득하여, 품질이 좋은 일본도는 자신이 간수하고 그보다 못한 검은 장수에게 선물로 보낸다. 그는 후일 청 황제가 보검인 일본도를 조선에 요구하자 그 때서야 보관했던 좋은 검을 진상하면서, 임의백에게 자신이 미래를 예측하여 그러한 행동을 했음을 밝힌다.

또 이보다 앞서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선조조고사본말(宣祖朝故事本末)」에서는 정묘년(1627, 인조 5) 당시 후금(後金)의 차사(差使)가 일본도 500자루를 조선 조정에게 요구하여 받아갔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은 17세기에 조선이 청나라에 전해지는 일본도의 중간 유통경로 역할을 어느 정도 담당하였음을 의미하며, 앞서 소개한 대로 추후 18세기에 청나라 문인인 친구 증욱과 장문도에게 일본도를 선물한 박제가의 사례도 이러한 경향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검을 중국인으로부터 조선인이 선물로 받은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비록 공식적 예물에 관한 자료는 아니지만, 공적인 회합을 통해 받게 된 도검선물에 관한 내용이기에는 본질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성해응의 검명 중 <가중고검명(家中古劔銘)>은 성해응의 조상 장곡(藏谷) 성준구(成俊耆, 1574~1633)가 중국 장수 모문룡(毛文龍)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쌍검(雙劔)에 대한 명(銘)이다.

선조 관찰공께서는 승정(崇禎) 년간에 양서관향사(兩西管餉使)가 되었는데, 충신(忠信)으로 일을 처리하여 가도(槓島)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정묘년(丁卯年, 1627)에 찬획사(贊劃使)가 되어 모문룡(毛文龍)과 일찌기 중강(中江)에서 회합한 일이 있었는데, 문룡이 검 두 자루를 관찰공께 주었다. 관찰공께서 해서(海西) 감영에 있을 때 창고에 불이 나자, 시종하는 사람에게 명하여 검으로 그 자물쇠를 찍게 하였다. 자물쇠는 바로 끊어졌고 칼날에는

약간 흠이 생겼다. 후에 용렬한 대장장이가 그 칼을 버리다가 방도를 잃어서, 다시는 접때의 날카로움이 없었다. 다른 한 자루는 난 중에 잃어버렸다. 명을 짓는다.³⁷⁾

天將劍 천장(天將)의 검(劍)을
 先祖服 선조(先祖)께서 차셨네
 餘百年 100년이 넘도록
 廢拂拭 같고 닦지 않아서
 銛刃鈍 칼날은 무디어지고
 塵土蝕 진토(塵土)에서 삭았네

이 글에서의 관찰공(觀察公)은 성준구로, 1627년 성준구가 찬획사(贊劃使)가 되어 명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과 중강(中江)에서 회합했을 때, 모문룡으로부터 검 두 자루를 선물받았다. 이후 성준구가 황해도 감영에서 근무하던 1631년경 창고에 화재가 나자 그 중 한 자루로 창고의 자물쇠를 찍어 끊어버렸는데, 이로 인한 칼날의 흠을 수리하다가 재주없는 대장장이의 실수로 날이 망가져버렸다. 그리고 다른 한 자루는 호란(胡亂) 중에 망실(亡失)되었다. 검명에서는 모문룡의 검을 성준구가 패용했었으나,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후손들에게 전수되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칼날이 망가지고 먼지 속에서 잠식되어 감을 쓸쓸한 어조로 읊고 있다.

친선의 예물로서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 일본도를 증여한 사례는 비록 자발적인 증여가 아닌 반강제적인 증여이긴 하나, 17세기에 조선-청나라 간의 일본도 유통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려주는 증거 자료가 되며, 이는 청나라가 공식적으로 조선에 일본도를 예물로 요구할

37) 『研經齋全集』 卷15, <家中古劍銘> : 先祖觀察公崇禎中, 爲兩西管餉使, 以忠信得椴島人之心. 丁卯爲贊劃使毛文龍嘗會於中江, 文龍以劍二口贈觀察公. 觀察公在海西營, 庫失火, 命侍者以劍斫其鑰鎖. 卽斷而劍微缺. 後庸工冶之失其方, 不復如向時之利矣. 其一失於亂. 銘曰 : ….

정도로 청나라 내에서 일본도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문룡이 성준구에게 쌍검을 선물한 일화는, 중국과 조선 간의 공식적인 외교관계에서도 개인적으로 도검을 증여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입증해 준다.

IV. 결론

조선의 사대부들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의기(義氣)와 무용(武勇)에 따라 검의 존재에 의미(意味)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평가했었다. 이 때문에, 도검선물을 증여하는 행위는 곧 도검이 자신을 제대로 써줄 올바른 주인에게 귀속됨을 상징하게 된다.

국내의 친족간에 도검이 증여된 상황을 살펴보면, 김육은 부친이 제작한 검을 받아서 자식에게 물려주었고, 남이응은 임진왜란 당시 탈취한 일본도를 자손 대대로 물려주게 된다. 그리고 이원정의 칼은 그의 부인에 의해 증손자에게 전해지고, 증손자가 요절한 이후에는 증손자의 손자에게까지 물려지게 된다. 그리고 신정은 그의 자식들에게 쌍검을 주고, 신정의 할아버지인 신희은 아들 신익성에게서 인검을 선물받기도 했었다. 이러한 친족간 도검증여에 관한 문학작품들은, 비록 증여된 도검의 원산지가 조선·중국·일본으로 제각각이고 도검 자체의 성능이 천차만별일지라도, 그 도검을 친족이 선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을 보검으로 인식하는 조선 사대부의 도검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무관이 도검선물을 증여받은 기록은, 홍무적에게서 집안 대대로 내려온 고검을 선물받은 이완의 일화와, 심상규에게서 이순신의 칼을 물려받은 박종경의 이야기에서 확인이 되는데, 도검이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났을 때 그 효용이 극대화되고 보검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생각했던 조선 사대부의 도검관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국제적인 도검 교류에 있어서, 우정의 징표인 도검선물의 경우 백호 임제

는 왜국 상인에게서 일본도를 선물받았고, 연경으로 간 사신단인 정태화와 정재송 부자 일행은 중국 문사 위상과 만나서 조선칼을 그에게 선물로 주기도 한다. 또 박제가 는 일본도를 구해서 중국 문인인 증욱과 장문도를 만났을 때 증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도검을 선물로 증여하는 행위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에 대한 관념을 당시대 동아시아인들이 공유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국제적 친선의 예물로서 도검선물이 증여된 경우를 살펴보면, 중국에 바쳐진 공물의 품목 중 하나인 일본도에 관련된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성해응의 조상인 성준구의 일화에서 명나라의 장군이 조선의 관리에게 도검을 증여한 경우도 발견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례들은 17세기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일본도 유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주며, 명나라와 조선 사이의 공적 외교관계에서 간혹 사적인 도검증여가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조선의 도검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 과정의 일환으로, 조선시대에 있어서 도검의 증여가 지니는 의미와 그 실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비록 자료 발굴의 한계 때문에 그 내용이 소략하기는 하나, 본고가 추후 조선의 도검문화와 도검문학에 대한 본격적 연구에 진입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원전

『鼓山集』 『敦巖集』 『默軒先生文集』 『眉叟記言』 『白湖全書』 『汾厓遺稿』
『象村集』 『碩齋稿』 『星湖全集』 『研經齋全集』 『元和郡縣志』 『耳溪集』
『潛谷遺稿』 『貞蕤閣集』 『海東釋史』 『瓏齋集』 『縞紵集』

역서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三溟詩話』, 소명출판, 2006.
申翼澈 外 譯, 『松泉筆譚』 1·2·3, 보고사, 2009.

저서

후지츠카 치카시[藤塚鄰], 『추사 김정희의 또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논문

- 安大會, 「魏際瑞의 인물됨과 『伯子論文』의 가치」, 『漢文學報』 第29輯, 2013, 353~399쪽.
- 安大會, 「조정 박제가의 여행과 일상 속의 국제교류」, 『동방학지』 145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37~64쪽.
- 曹相烈, 「白湖林悌文學研究」, 又石大學校 國語國文學科 博士學位論文, 2006.
- 趙赫相, 「朝鮮朝 寅劔의 象徵性 研究」, 『軍史』 第62號,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2007, 131~159쪽.
- 趙赫相, 「朝鮮後期 刀劔의 文學的 形象化 研究」, 成均館大學校 漢文學科 博士學位論文, 2011.
- 趙赫相, 「朝鮮後期 士人의 刀劔愛好傾向에 대한 考察」, 『東方漢文學』 제52집, 東方漢文學會, 2012, 351~388쪽.
- 趙赫相, 「朝鮮後期 士人의 日本刀 認識에 대한 考察」, 『漢文學報』 第20輯, 2009, 515~544쪽.
- 趙赫相, 「忠武公 李舜臣의 劔에 대한 小考」, 『李舜臣研究論叢』 第10號, 順天鄉大學校 李舜臣研究所, 2009, 144~171쪽.

도록

-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충무공 장검 제작 7주갑 기념 특별전)』圖錄, 현충사관리소, 2014.
- 『槿墨』, 하영희 역 김채식 교열, 成均館大學校 博物館, 2009.
- 『우리나라의 傳統武器』圖錄, 戰爭紀念館, 2004.
- 『朝鮮時代の 刀劍』圖錄,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2004.
- 『朝鮮의 刀劍, 忠을 버루다』圖錄,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2013.
- 『칼, 실용과 상징』圖錄, 高麗大學校 博物館·耕仁美術館, 2008.
- 『韓國 傳統武器 調査』(刀劍·火器類), 國立民俗博物館, 2003.



STUDY OF A KOREAN SWORD GIFT IN LATE JOSEON DYNASTY

CHO, HYUK SANG

Across the all ages and the nations of the world, a sword has been known as a recognition and symbol of authority. A sword is personal basic weapon for killing the enemy. By having sword, a person has the authority to choose the enemy's life and death.

Giving a sword as gift means one who receive it, that person can gain great authority to fight foreign enemies and evil ones. They also believed sword has similar effect as an amulet that can protect person from monsters and evil creatures.

In the Korean Sword literature, A sword of the used for demolish foreign enemies and evil ones are known as an UiGeom(義劍 : Sword of justice). And an amulet sword which protects owner from monsters and evil creatures are known as an ShinGeom(神劍 : Amulet Sword to avert evils). A sword as a gift contains these two aspects and after they are given to the new owner, it becomes a SuyangGeom(修養劍 : Swords to improve spiritual culture). These three images of Korean sword ; UiGeom, ShinGeom, and SuyangGeom helps to understand Korean sword culture and to analyze gift swords by types.

This paper analyzed a gift of swords in Korea by types. 'Domestic sword gift' shows a sword gift between relatives or a military officer. 'Global sword gift' indicates a friendship and an official presents between Korea and China. These helps to understand a Korean sword culture and a Korean Sword literature.

Key Word : a sword, a korean sword gift, UiGeom(義劍 : Sword of justice), ShinGeom(神劍 : Amulet Sword to avert evils), SuyangGeom(修養劍 : Sword to improve spiritual culture), a Korean sword culture, a Korean Sword literature